

빛을 주는 시각장애인의 마음

이웃을 내 몸 같이,

제호의 '빛'은 육안으로 보이는 빛을 넘어서 희망, 사랑, 행복을 뜻합니다.



기술로 세계를 섬기는 기업 직원이 행복해지는 기업, 이포넷



T&G사업본부
전문 IT 번역 서비스

S&C사업본부
금융·공공부문 개발 및 솔루션 서비스



제호 격월호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6년 3월 30일 통권 124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김은애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 880, 0500 FAX 02, 887, 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 2275, 6960

같이 끝나는 곳에서도
같이 있다

같이 끝나는 곳에서도
같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_봄길, 정호승

Contents



04 포커스
'실로암 카페모아 6호점 개소식' 현장
'2016년 시각장애인 스키캠프' 개최



08 새소식
보조공학기기 대여식 / 한식조리 콘서트

10 희망나눔
'만나면 좋은 친구' 이용자 인터뷰 - 이남기 님

12 사랑나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러브 블라인드(LOVE Blind)
- 미래에셋 증권 '이윤정 대리'

14 해피스토리
2016년 1월~2월 사업 현장

18 미리보기
4월~5월 행사 안내



19 나눔플러스
후원 안내



6번째 희망의 터전, 카페모아 서울여성플라자점 개소



지난 2월 25일(목),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카페모아'가 서울여성플라자 1층에서 '6호점'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연주를 시작으로 개소식이 시작되었는데요.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카페모아 6호점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서기이사 및 연신교회 담임목사이신 이순창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개소식을 인도해주셨으며 실로암 요양원 원목이신 김무경 목사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 및 동일교회 담임목사이신 김휘현 목사님께서 기도와 감사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폴 중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카페모아의 개업을 축하했으며 근로사업장 박옥희 원장의 경과보고로 카페모아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었습니다. 김선태 이사장(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최동익 의원, 전병현 의원 등 많은 귀빈들께서 축하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서울여성플라자 정문 앞에서 테이프커팅식을 진행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여섯 번째 가능성을 발견하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현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카페모아가 걷고 있는 여정을 대변해주는 말이 아닐까 싶다.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 단언했던 그 불가능을 카페모아는 여섯 번째 가능성으로 만들어 냈다. 그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개소식 현장을 스케치해보았다.

지난 2월 1일(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 카페모아 6호점은 현재 시각장애인 이선주, 문선영, 황은별 씨가 운영해가고 있는데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바리스타카페창업훈련을 수료한 후 카페모아에 취업한 바리스타 이선주 씨는 "시각장애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장애 때문에 주저했던 경험이 많은데, 이제는 불가능보다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우리를 보고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를 만들어냈습니다.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박옥희 원장은 "시각장애인들은 보이지 않아도 청각, 후각, 촉각 등 온몸의 감각을 사용해 능숙하게 커피를 만든다. 이들은 커피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카페모아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같이 브랜드화시킴으로써,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모델로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원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카페모아 6호점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 전액은 근로장애인 복리후생 및 카페모아 추가 개소에 사용할 예정이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이를 바탕으로 여성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폭넓은 일터를 꿈꾸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여성 공동체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가치가 부합되어,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카페 전문점이 생기고 있는 요즘, 카페모아가 빛을 발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그 자체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메뉴가

있거나 다양한 이벤트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아도 카페모아의 커피는 그 어떤 커피보다도 달콤하며 따뜻하고 향기롭습니다. 커피를 내린 바리스타의 손길 하나 하나에 노력과 정성과 설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1999년 개관 이래, 시각적인 제약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들보다 근로비율이 현저히 낮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주력해온 바리스타 카페창업훈련은 연간 31명, 현재까지 총 110여 명의 바리스타를 배출해내며 안마사에만 국한되어있던 취업 직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페모아는 6호점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한국 땅에는 그리고 세계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좌절하고 낙담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제한 없이 꿈꾸고, 차별 없이 꿈을 이루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카페모아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눈이 보이진 않아도 눈을 달린 손 있습니다

누가 그들은 할 수 없을 거라고 했는가, “시각장애인들이 스키캠프에 갑니다”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어떻게?”라는 표정을 짓곤 한다. 그런데 간파하고 있는 건 그들이 스키코스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내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코스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2016년 시각장애인 스키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스키캠프는 시각장애인들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기는 스키에 도전하여 자신감을 높임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향한 올바른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캠프에는 시각장애인 16명과 자원봉사자 16명 등 총 36명이 함께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스키 강습을 위해 한국대학스키연맹 자원봉사자들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은 수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조로 나뉘어 1:1 밀착 강습을 받았습니다.

스키캠프에 참가하여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스키를 탔던 시각장애인 박종호 님(47)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스키를 비롯한 겨울 스포츠는 비장애인들만의 여가활동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이번 스키캠프를 통해 시각장애인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돼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또한, 시각장애인 곽창현 님(34)은 “우수한 강사진들 덕분에 질 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다음번 스키캠프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겨울을 즐기는
시각장애인들의
설원 활주!



길을 가다보면 돌아가야 하는 때도 있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때도 있다. 아예 목적지를 바꾸어 가야 할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가는 것이다. 끊임없는 커브길, 오르내림이 심한 언덕길, 장애물이 수도룩한 위험한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험난한 길 위에서도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p. 75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_신순규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 재무분석사이며 세계적인 투자는행인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에서 일하는 신순규 저자의 글입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들도 스키를 배우고 타기 위해선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두렵지만, 다시 일어서서 도전해야 합니다. 아마 시각장애인들은 그보다 수백배 큰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그렇기에 수백배 많은 노력과 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커브길, 언덕길, 장애물이 삶 가운데 펼쳐질 지라도, 설원을 멋지게 활주했던 그날의 성공을 회상하며, 넉넉히 뛰어넘으시길 응원합니다.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지지대로!

2016년도 상반기 보조공학기기 대여식 진행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자 보조공학기기 대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20일, 2016년도 상반기 보조공학기기 대여식을 개최하여 총 19명의 시각 장애인학생들에게 보조공학기기(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디지털레이어, 스크린리더)를 대여해주었습니다. 이날 대여된 기기는 총 19대로 (한소네U2 13대, 세이카미니 1대, 비지오북 2대, 스노우7 1대, 스노우 1대, JAWS 1대)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디지털레이어 등 다양한 제품이 대여되었습니다. 대여식에서는 대여용 보조공학기기와 보조공학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실로암포네, 룩스데이지)을 강당에 전시하여 여러 제품을 선보였고, 대여자들은 대여 기기와 신규 보조공학기기를 직접 체험하고 시연해봄으로써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장애로 인한 제약적인 기능을 대체해주는 기기를 보조기기라고 하는데, 흰 지팡이와 같은 보조기기부터 하이테크놀로지가 접목된 보조기기까지 그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는 잔존 시력의 활용 여부와 필요한 기능에 따라 여러 제품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기들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습득은 물론, 학습지원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매년 보조공학기기 대여식을 개최하여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를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는 제품들이 더 많이 출시되기를 기원합니다.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와 음성을 통해 문서의 출력과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로 대표적인 점자정보단말기로는 브레이일 한소네(한국) 등이 있다.



확대독서기
저시력인이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문자를 확대해 주는 장치로 배울 및 대비 조절과 색상 변경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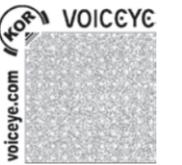
디지털레이어
시각장애인을 디지털 독서기로 책갈피, 빨리 듣기, 찾기 등의 편리 기능이 있고, 블루투스, FM라디오, 녹음기능도 지원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스크린리더
화면의 내용과 자신이 입력한 키보드 정보 및 마우스 좌표 등을 음성을 알려주어 컴퓨터 사용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Yo~ Are you ready?

한식조리콘서트



사랑의열매 * 본 사업은 서울사회공동모금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됩니다.



달그락거리는 냄비 소리, 치익 치익~ 기름과 채소가 한데 어우러져 볶아지는 프라이팬, 탁탁 탁 도마 위 칼의 리듬, 실 새 없는 주문 오더에 정신없이 분주한 주방 안, 빠른 손놀림과 능숙한 칼질로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한 여성이 보인다.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그녀는 당연히 요리사이다. 그녀의 이름은 로라 마르티네스, 미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요리사이다. '장애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분하려고 쓰는 용어예요, 제게 장애는 하나의 상표일 뿐입니다.' -로라 마르티네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요리사가 될 수 없다는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는 그녀처럼, 여기 요리사를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 한식조리사 양성훈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진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도와 조리 관련 직종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의 꿈 달성, 그 이상의 의미로 시각장애인 신규 직종 개발을 통해 직업군의 지평을 넓히고 전문직업인으로 취업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새로운 기회인데요, 본 사업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이론 및 실기교육, 오픈강좌 및 요리시연회, 취업 전 교육 및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뿐 아니라 취업 지원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 3월 14일 첫 수업을 기점으로 이들의 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식조리사 이론과정을 통해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론과정을 이수한 후, 이와 병행한 실기과정 실습을 하여 자격증 실기시험을 준비합니다. 오픈강좌를 진행하여 요리에 관심 있는 여러 시각장애인에게 보고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요리시연회를 연 4회 개최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그간 익힌 기술로 음식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대접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비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을 거라 예상해봅니다. 또한, 더불어 이어지는 취업 전 교육과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실제적인 취업의 기회를 노력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초훈련에 그치지 않고 전문직업인으로 나아가는 목적을 둔 본 사업이 한식조리콘서트는 이름에 걸맞게 맛깔스럽고 다이내믹한 여정이 될 거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로라 마르티네스, 먼저 걸어진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 고유의 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제2의 로라 마르티네스가 나오길 바라며, 앞으로 진행될 한식조리콘서트를 더욱 기대해본다.

Interview

2016
실로암복지관
이용자의
희망 인터뷰

“만나면 좋은 친구”

1988년 이전에 망막색소변색증으로 인해 중도실명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실명이 될 경우, 충격 이크다고 하던데, 당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원래는 야맹증이었는데, 점점 진행이 되어서 88년도에는 거의 안 보이게 되었어요. 중도 실명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죠.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다행히 그 당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 주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나름대로 노력하여 간신히 끼니정도는 해결을 했죠. 그 후에 안마사협회를 알게 되고 안마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한 분은 당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찾아와 커피를 사주시면서 힘을 주셨어요. 덕분에 세상으로 조금씩 나올 수 있었죠. 최동익 의원님도 그 당시부터 인연을 맺어왔어요. 당시 맹인교회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많은 시각장애인분들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러면서 안마사 자격증도 따게 되고 아이들도 기를 수 있었어요.

2010년부터 저희 복지관이란 인연을 맺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복지관을 알게 되셨나요? 또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사까지 오셨다고 들었어요. 저희 복지관의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그 당시 출석하던 교회에서 낸 광고를 통해 실로암 복지관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별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왔던 건데, 그게 이렇게 인연이 되었네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냐고요? 시각장애인분들은 다 알겠지만 실로암복지관이야, 워낙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많아서 좋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에게요. 병을 얻어 거의 죽을 몸이 되었고 몸도 맘도 다 망가져서 힘들어할 때, 바쁜 와중에도 한 시간, 삼십분씩 찾아와 얘기 들어주고 안심시켜주던 직원. 아직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해준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없었어요. 몸이 힘들고 하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 생각이 나서 죽지를 못하겠더라고.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분뿐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집 얻을 수 있게 해주신 분도 있었고 헤아릴 수 없이 좋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겠죠. 밤낮 가리지 않고 손과 발이 되어 도와주는 활동보조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로암의 사람들, 그게 가장 남아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요, 오랜 시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 혹은 동기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젊었을 때부터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지, 운동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첫째는 등산, 예전에는 생각도 못 했던 등산을 베테랑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가뿐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성취감과 개운함이란. 헬스도 좋았고 요가나 댄스도 재밌었어요. 그게 벌써 4~5년 전인데, 이제는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산책 정도만 가능해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예요, 그게 실로암복지관을 계속 오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나이와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전 등산을 못하는 게 아쉽지만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이번 산책프로그램도 바로 신청했어요.

복지관 이용자(2010년~)
이남기 님(중도실명, 1988년 이전 망막색소변색증)



프로그램 신청하시면 참 성실하게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성실히 참여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간단해요. 안 움직이면 죽으니까, 아마 한 달만 드러누워 있으면 바로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힘이 들고 장거리 이동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은 거나 다름 없잖아요.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아까워서 누워있겠어요? 솔직히 장애인에 대해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지만 저는 나이가 들고 해서 그런지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어요. 복지관에서 반찬 가져다 주지, 생활비도 주지, 그것도 나한테는 많아요,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 좋은 사람들도 만나지. 이런 배려들이 없었다면 과연 살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 고맙죠. 복지관도 그리고 인생도. 그러다 보니 하루 하루가 아까워서 이렇게 열심히 사나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변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말이 많아졌어요.(웃음) 예전에는 어디 가서 말을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상태도 아니었어요. 몸도 안 좋았고 혼자 갇혀 지내는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수없이 나들이 나가서 바람 쐬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상대하고 대화도 하죠. 그것도 대화가 가능하니까 하는 건데,

복지관에 있는 분들은 일반 사회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배려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상냥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달라져 버렸지. 예전에는 노래방 가도 노래 하나 못하고 쭈그러 앉아있었는데, 언제 한번 복지관 나들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춤도 배웠겠다, 까짓것 동실동실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변해 버린 거요.

복지관 직원분들께서 말씀해주시길,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고 참 밝으셔서 만나면 옆사람까지 기분 좋게 살아간다고 하던데요. 밝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이유 혹은 인생의 좌우명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저는 가급적이면 웃으려고 해요. 속이 썩어있어도 웃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히 웃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쁜 일이 생겨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까짓 거 무시하자', 그러면서 웃재! 웃재! 하고 두 번 세 번 생각하면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좌우명은 원수 짓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나쁜 걸 안 만들려고 하고 누가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불평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각 사람 나름대로의 사연과 삶이 있는 거거든. 내 걸로 끌어오려고 하면 서로가 힘들게 되어있지만 이해하고

포용하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거지요.

앞으로의 꿈,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뭐가 되겠다, 뭐를 이루겠다 이런 꿈은 없어요. 그저 지금 이대로 행복하게 좀 더 살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말이에요. 지금은 복지관 이용이 하나의 생활이 되었는데, 이 생활이 즐거워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인생 얘기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네요. 어떤 분이 알려주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세 번 말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던데, 근데 요즘 저는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해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살아보니까 거기서 거기예요. 금수저 물고 온 사람도, 흙수저 들고 온 사람도, 나이 먹고 살다 보면 다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침대에 드러누워서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방바닥에 누워서 살고 있고, 그 정도 차이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장애인이 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위축될 것도 없어요. 그냥 욕심 내려놓고 즐겁게 현실을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거기다 요즘은 발전이 많이 되어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단계인데, 왜 절망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안타까워요. 자신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Interviewee

미래에셋 증권
이윤정 대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러브 블라인드

LOVE Blind

미래에셋증권 '감사하는 봉사단'은 배려와 나눔이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특화봉사단으로서 형식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시각장애인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한 봉사단입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미래에셋증권 내부통제부서 임직원 60여명으로 구성된 '감사하는 봉사단'은 2008년부터 4년간 고아원, 보육원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이 아니기에 기관에서는 없는 일을 만들어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한 봉사활동이 이용자나 기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일반적인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특화된 활동을 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2012년 2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과 '러브 블라인드(LOVE Blind)' 협약식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봉사 내용이나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시나요?

러브 블라인드는 매년 시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연간 단위로 기획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또한 저희가 일방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니즈를 고려한 복지관의 연간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금융상담 봉사활동과 헤드셋 포장조립 봉사활동, 두 가지 봉사활동으로 오랫동안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각 봉사활동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금융교육 재능기부는 시각장애인들이 금융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의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금융시장과 상품을 이해하고 자산관리 노하우를 알아보는데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금융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시지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적 제약이 있기에 그에 맞는 맞춤형 안내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금융교육 봉사는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활동이기에, 앞으로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처음 헤드셋 포장 조립 봉사활동을 제안 받았을 땐,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하여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분들과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헤드셋 포장 조립 일이 단순 노동의 의미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일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봉사활동을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금융교육 봉사만큼이나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으며, 하나의 불량품도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후원금으로 시각장애인블링클럽대회, 고적답사, 개안수술, 아동&청소년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후원을 통해 미래에셋이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미래에셋증권의 사회공헌활동은 '따뜻한 자본주의의 실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건 고객의 부의 증대에 기여하는 투자금융그룹의 역할을 넘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기업의 성장은 책임을 수반하며 그렇기에 기업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말로만 앞서는 사회공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회공헌을 위해 고민할 것이며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호흡해나갈 것입니다.

후원활동과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기존에 가졌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중 바뀐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자·점자도서 제작 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시각장애인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것과 직접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고 느낀 것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눈을 가리니, 발 밑이 평지인지 언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무서운 마음에 식은땀이 날 정도였어요. 평소 잘 가던 지하철 통로의 짧은 거리였는데, 왜 그리 길게만 느껴지는지. 자신의 팔꿈치를 내어준 분이 없었다면, 글썄요,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하니, 비록 무서웠지만 도착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전까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컸는데, 장애 체험을 하고 시각장애인들과 교류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구든 자신의 팔꿈치를 내어주며 도와주는 사람만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무슨 일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복지관을 방문할 때마다 카페모아를 찾게 되는데, 시중의 유명 브랜드 커피만큼이나 맛이 좋습니다. 지금은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라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처럼 시각장애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의식하지 않고, 용기 내어 도전한다면 무슨 일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LOVE Blind





01



01



01



01



04



02



01



02

복지관

학습지원센터



04



03



01



02



02



0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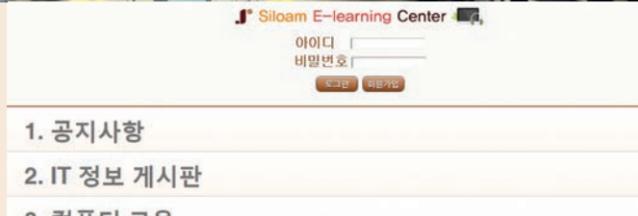
03



02



04



03

01 2016년 시무예배_01.04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은 새해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2016년 시무예배를 진행했습니다.

02 활동지원사업 신규 & 보수교육_01.26~27/02.23
지역사회지원센터에서는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1차 보수교육과 활동보조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03 하나금융나눔재단 후원품 전달식_02.01
하나금융나눔재단은 2월 1일 후원품 전달식을 통해 설명절을 맞이하여 후원품을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4 성주재단 감사패 전달식_02.04
2015년 한 해 동안 시각장애인들에게 사랑을 전해 준 성주재단에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01 관현맹인 공연(영등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중랑구 자원봉사센터/신림종합사회복지관)_01.14, 19, 21, 27/02.24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서울 소재 자원봉사센터 4곳과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국악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02 제1차 씨네토크_02.27
디지털도서관은 2월 27일 영화 읽기 강사 윤희운 선생님을 모시고 제1차 씨네토크를 진행했습니다.

03 Siloam E-learning Center(온라인 교육사이트)
온라인 교육사이트인 실로암 이러닝센터에서는 Mac무작정 시작하기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4 2월 대체도서 업데이트
디지털도서관에서는 매달 대체도서를 업데이트하여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점자약보/전자도서/아이프리 데이터도서/녹음도서/ARS 모바일도서관/확대도서/점자동화책)





설리번학습지원센터



- 01 시각장애아동방학특강_01.05~28**
가족지원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1월 5일부터 28일까지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레고덕타교실, 창의력 과학교실을 진행했습니다.
- 02 HCI Korea 2016 학회 3D 축지도 디자인 사례 발표_01.27~01.29**
촉각교재제작팀에서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하이원 컨벤션센터에서 3D축지도 디자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03 용교재 전시_상시**
한국학생점자도서관에서는 촉각교재 내부전시를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04 겨울방학 어휘력향상 한자교실_01.05~01.28**
학습도서제작팀은 1월 5일부터 28일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어휘력 향상을 위한 한자교실을 진행했습니다.

근로사업장



2016년 직업훈련 입학식_01.04
근로사업장에서는 1월 4일 컴퓨터 활용 전문가 양성, 안마지압 창업, 바리스타 카페창업, 점역교정사 양성훈련, 베이커리 창업 훈련생들의 직업훈련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



고용지원센터에서는 2월 25일 2016년 상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여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이 반듯한 시각장애 대학생 12명에게 총 4,15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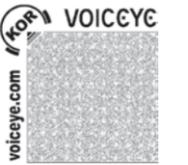
효명장학사업은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 훗날 시각장애인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77명의 효명장학생을 발굴했으며, 6억 5,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학금을 후원한 (주)AMO그룹 김병규 회장과 한국장로신문 김건철 장로가 참석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국회의원도 함께 자리하였으며 김진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 겸 목사는 "성공을 위해서는 땀, 눈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땀은 근면을 뜻하고 눈물은 정성을 의미한다. 장애를 가졌기

에 혜택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대가를 치르며 정당당당하게 경쟁해 목표한 일들을 이루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효명장학금을 수여한 학생들은 앞으로 '효명리더스클럽'에 가입해 사회·경제·취업 등에 관한 다방면의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김미경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장학금으로 인해 꿈을 키워갈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효명장학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꿈과 미래에 후원하는 사업이다. 앞으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능력 있는 리더로 성장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효명장학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Program & Notice

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 안내

실로암 음성재활정보 서비스

전화와 모바일을 통해 녹음도서, 뉴스, 동아리활동 등 유익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 시 : 연중 · 장 소 : 국내외
- 문 의 : 정보미디어팀 02-880-0570

실로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3종) 운영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실로암포네 /Lux DAISY/아이프리)를 제공합니다. 실로암포네 기능 업데이트가 5월 중 진행됩니다.

- 일 시 : 연중 · 장 소 : 국내외
- 문 의 : 정보미디어팀 02-880-0570

바다낚시

바다 위에서 선상낚시를 즐기고 직접 잡은 생선회를 맛보는 즐거운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 일 시 : 2016년 5월 중 · 장 소 : 충남 태안군 방포항
- 문 의 : 문화체육지원센터 02-880-0832

외국어회화교실(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외국어 학습을 통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외국어회화교실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6년 3월~7월 · 장 소 : 복지관 5층 외국어교육실
- 문 의 : 디지털도서관 02-880-0646

씨네토크

또 하나의 독서, 영화 읽기 시간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독서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마지막주 (토)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
- 문 의 : 디지털도서관 02-880-0644

2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나들이 '환상의 짝꿍'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함께하는 야외 나들이 활동을 진행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5월 28일 · 장 소 : 서울, 경기도 인근 지역
- 문 의 : 지역사회지원센터 02-880-0821~4

재가시각장애인 야외나들이

여가 활용을 위한 야외 활동으로 재가시각장애인들과 서울 근교 나들이를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21일, 5월 18일 · 장 소 : 서울, 경기도 인근 지역
- 문 의 : 지역사회지원센터 02-880-0828

무료 안과 검진

시각장애인 및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하여 시력저하 및 실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6일(9:00~16:00)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문 의 : 지역사회지원센터 02-880-0825

2016 시각장애인가족 한마음축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시각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경기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5월 7일
-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국회운동장
- 문 의 : 지역사회지원센터 02-880-0827

음악재활아카데미 - 서양음악교실

음악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진 성인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음악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재활을 돕고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 일 시 : 2016년 3월~11월
- 장 소 : 본 복지관 효명음악실, 그룹사운드실
- 문 의 : 음악지역팀 02-880-0661, 0663, 0666~7

역사체험

시각장애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학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사 현장체험 및 이론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 장 소 : 경기도 수원 화성
- 문 의 : 가족지원센터 02-880-0607

시각장애아동가족캠프 - 아빠 같이개!

시각장애자녀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를 통해 친밀도를 향상시키고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가족관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6년 5월 27일(금)~28일(토) / 1박 2일
- 장 소 : 경기도 포천 일대
- 문 의 : 가족지원센터 02-880-0604

관현맹인전통예술단 몽골해외공연

제 11차 ASEM 정상회의 개최기념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초청공연을 통해 몽골 현지인 및 교민, ASEM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합니다.

- 일 시 : 2016년 5월 23일(월)~31일(화)
- 장 소 : 몽골국립오페라발레극장 외
- 문 의 : 관현맹인팀 02-880-0691~3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2-139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하나은행 577-810008-221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시각장애인 개인수술지원

하나은행 577-910005-380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요양원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8-121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CMS 정기자동이체 신청

전화문의 홍보팀 02-880-0868~9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 내역

구분	복지관 후원	개인수술 후원	실로암요양원 후원	복지회 후원	총액
1월	6,464,750	2,205,000	1,473,870	998,945	11,142,565
2월	84,434,740	5,305,000	1,556,640	75,667,775	166,964,155

후원자명단

복지관 후원

강문창 강미숙 강미혜 강민석 강창구 강현희 강희원 고미미 고선용 고선화 고슬기 고지후 광천아 광천용 권정홍 권정희 권희정 김건철 김경국 김계심 김광훈 김규남 김근하 김기순 김누리 김다혜 김도연 김동진 김명아 김무는 김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정 김민경 김민선 김민식 김민정 김민혜 김보정 김상수 김상영 김선에 김선하 김성애 김성자 김성진 김성화 김성훈 김세연 김소정 김소희 김 수 김수연 김수정 김숙현 김순호 김향수 김영순 김영은 김영준 김영진 김예은 김우도 김원봉 김윤진 김은민 김잔디 김재민 김재성 김재환 김정은 김종규 김주리 김 준 김준영 김지혜 김진수 김충현 김태희 김해인 김현도 김현순 김현정 김혜란 김혜인 김호남 김효원 김희연 김희영 나가연 나민형 나병택 나서취 남기운 남우현 노계정 노성은 노위제 노하영 노형석 당호영 당화정 도윤희 명태순 문소란 문정이 문홍수 민경나 민광기 민병찬 민성환 민수진 박경선 박경숙 박고심 박대삼 박도희 박문숙 박미경 박민규 박상도 박신희 박세근 박세희 박소정 박솔민 박수호 박순이 박옥련 박용일 박은애 박정미 박정복 박지연 박지영 박지은 박하니 박현수 박혜림 박화경 방명애 배은정 배종석 배지혜 백순복 봉하중 서성교 서원호 서익승 서정석 서희경 성기은 성명숙 성지영 성지혜 송경원 송영희 송우정 송은숙 송은정 송정미 송재용 신덕수 신동선 신성만 신종현 신하나 신홍연 심관섭 심재민 심재숙 양관동 양민정 양지혜 양혜진 양호열 양경순 엄현희 오세용 오승범 오지수 오태훈 오하영 오하나 유미현 유지영 유지연 유현옥 윤나라 윤대현 윤동혁 윤명현 윤보라 윤성재 윤이근 윤지현 윤혜연 이광성 이교순 이규성 이길원 이나연 이동형 이동훈 이로서 이만승 이면우 이명호 이미영 이민기 이민환 이병재 이봉희 이상철 이상현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아 이실한 이세희 이 송 이승화 이예성 이예일 이옥경 이옥희 이요한 이윤선 이원재 이은별 이은정 이은우 이인애 이재웅 이재은 이정아 이정원 이정인 이정준 이정현 이주호 이지선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은 이지훈 이진용 이진경 이진형 이찬신 이찬영 이창민 이창호 이태준 이태준 이하영 이한미 이현근 이현숙 이혜지 이화정 임명숙 임수정 임은성 임중재 장석철 장선희 장수진 장용진 장은경 장혜선 전경모 전아름 전영숙 전정자 전중환 정갑수 정다운 정미선 정미실 정민지 정보성 정성민 정성수 정수진 정연상 정영임 정옥자 정은정 정종일 정지혜 정태준 정현정 정혜진 조건희 조남주 조몽근 조미경 조봉래 조원명 조유진 조은일 조은희 조진만 주재은 진보라 진태욱 천소영 최경록 최덕영 최흥미 최동익 최두수 최병현 최승현 최우정 최은희 최재석 최중철 최찬심 최창홍 최태선 하은성 하중백 하효선 한석주 한성희 한숙자 한승연 한승진 한승희 한영실 한은지 한재경 한재용 합순식 합요한 합주영 합지연 현지원 홍권용 홍예진 홍일선 홍정연 황소영 황순화 황정수 군포시자원봉사센터 서울동도회여 전도회연합회 실로암안과병원 씬딩스페셜 아모텍 어워홀 아이마켓코리아 양친선협 하나금융나눔재단 하나은행(봉천점) 한국수출입은행 한샘 해오름교회

개인수술 후원

김혜순 이상훈 정한영 정향산 허한수 동부산교회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서울동도회여전도회연합회 신한아이텍 투데코 한샘

실로암요양원 후원

김광훈 김광희 김동희 김무경 김민혜 김병숙 김복희 김영선 김영아 김은철 김은희 김민경 김정숙 김종홍 김태용 김형도 김호직 노성은 박고심 박성일 박소정 박지훈 서문섭 성옥순 송경원 안정임 양민정 윤나라 윤찬호 이광열 이금선 이미경 이봉희 이선례 이숙경 이순희 이영태 이윤규 이주호 임은성 장용진 장혜순 전정희 정구연 정은정 조영순 지정규 최도영 최영훈 하영태 한재근 함은창 함지영 함현식 남원추어탕 동촌교회 효명교회

복지회 후원

권수진 권영진 김경애 김남식 김미경 김미혜 김아를 김영철 김정래 김정옥 김주연 김태양 김현석 김현정 나병택 남정환 맹석재 박소정 박옥희 서범수 심아름 윤재훈 이동철 이성표 임 영 임영희 정대영 조경자 조행금 주수정 최동익 최상국 최양근 허승희 홍성현 동일교회 베이비드림 한샘 해피빈

※ 후원금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쓰여집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